

기독교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고찰

김희수 (백석대학교 교수)

I. 서론: 기독교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사회

II. 다문화사회의 정의

III. 외국인이주민과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들

1. 차별배제 모델
2. 동화 모델
3. 다문화주의 모델

IV. 한국의 선택: 배추김치 모델

1. 제1단계: 상호 적응 및 포용기
2. 제2단계: 숙성 및 정착 단계
- 3 제3단계: 도약기

V.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돌봄의 윤리 및 교회의 책임

VI. 맺는 말

• ABSTRACT •

Korea is becoming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and the economic and social need of Korea caused the import of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pouses and the increase of the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Korea has become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We have to try to sublimate this situation into the energy to produce a better country. For this we have to try two things. First, -we need to change the narrow mindset of Koreans to embrace and accept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ituation. Second, we have to help the foreign migrants an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o digest their bi-cultural identity and make it positiv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to born again as the citizen of a new Korea. To sublimate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urces into a positive energy to establish unity in variety, this article suggests 'cabbage kimchi' model and three stage processional method.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foreign spouses,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models for accepting foreigners and their cultures, cabbage kimchi model

I. 서론: 기독교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사회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자,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혼혈 자녀들의 출산이 한국의 다인종화 다문화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37,517(불법체류자 171,358명 포함)명이며¹⁾,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546,954(불법체류자 51,068명 포함)명이고²⁾, 산업연수생이 5,513(불법체류자 3,684명 포함)이다³⁾.

결혼이민자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139,050명(여 120,831(86.9%), 남 18,219(13.1%))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34,596(한국계중국인 31,777명(47.7%), 베트남 34,171명(24.6%), 일본 10,328명(7.4%) 필리핀 7,161명(5.1%) 순이었다. 혼인귀화자 47,578명을 합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인은 186,628명이다.⁴⁾ 입국 시기는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가 압도적으로 높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2009년 현재 총 99.7천명이며, 그것은 2020년 302.7천명으로 약 2배(203.7%,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동 기간 5.7천명에서 15.8천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93.9천명에서 286.9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은 205.4%로, 남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 17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⁵⁾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9월호, 8.

2) 위의 글, 20.

3) 같은 글.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9월호, 25-26.

5) 설동훈·서문화·이삼식·김영아,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보고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에 이르러 한국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세계화,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축소되면서 문화,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던 각 국가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물류의 활발한 이동과 전 세계의 문화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세계경제가 국가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 글로벌 도시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임금 전문 기술자들과 사업가들과 자본도 동시적으로 유입한다. 서울 역시 세계자본과 인력을 유입하는 거대 글로벌 도시 중 하나이다.⁶⁾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많은 도시들이 글로벌경제도시화 되었다.

둘째,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한국인노동자들의 3D 업종 회피, 농촌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의 소외, 결혼의 물질주의적 성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고 한국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된 주된 원인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필요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문화화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다.

서, 2009, xv.

6)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Today: Advantages of Specialization and Costs of Financialization", Paper presented at 2009 글로벌 서울 포럼: Global Metropolitan Forum of Seoul 2009,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The Global City: Strategies for Competitiveness), 서울, 신라호텔. Allen J. Scott, "Global City-Regions: Economic Motors and Political Actors on the World Stage", Paper presented at 2009 글로벌 서울 포럼: Global Metropolitan Forum of Seoul 2009,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The Global City: Strategies for Competitiveness), 서울, 신라호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다민족 다문화화 된 국가를 어떻게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나라로 발전시켜 가는가 하는 것이다.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간직한 채로 강압적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보장되고 정의와 복지가 이룩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기독교윤리적 과제가 된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다문화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된 사회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단계적 대처방안, 그리고 기독교윤리적 근거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다문화사회의 정의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문화(culture)’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문화(culture)’는 “예술 및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 특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⁷⁾ “관념과 감정과 가치의 통합된 체계 및 이와 관련된 행위의 형태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⁸⁾ 등으로 정의된다. 종합적으로 정의하자면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

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 교육』(파주: 도서출판동녘, 2009), 90.

8) Paul, G. Hiebert, 김동화 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41.

라고 할 수 있다.⁹⁾

‘다문화’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다수의 문화가 한 사회 속에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서 다문화란 용어의 사용은 이주민과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이후 중앙정부가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공포하면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다문화’와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게 되었다.¹⁰⁾

‘다문화사회’란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직업, 계층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의미한다.”¹¹⁾ 한국사회가 아직은 이 개념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인종 다문화 그룹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9) E.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New York: Henry Holt, 1889)

10) 박영은, 「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23집, 1995), 1-48. 이해경, 「다문화사회의 이해: 차이와 공존변화와 방향」, 『한국사회의 이해』(2008. 12), 37. 정미경, 「한국기독교와 이주민 선교」,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0차 정기 논문발표회, 「다문화사회와 기독교윤리」(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0. 11. 13), 2.

11) 정미경, 「한국기독교와 이주민 선교」, 5. 차용호,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1.

III. 외국인이주민과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들¹²⁾

그렇다면 다인종 다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먼저 다른 국가들이 시도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수용 모델들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 적절한 방안은 어떠한 것일지 모색해보기로 하자.

1. 차별배제 모델

차별배제 모델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에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역에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형이다.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독일, 일본 등이 이 모델을 채택했다. 이러한 나라들은 이중적 접근을 취하는데, 이주 집단의 성격에 따라 공식적인 권한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겨질 뿐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을 지닌다.¹³⁾ 이 모델의 대표적인 것으로 백호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다.

백호주의(白濠主義, The White Australia Policy)는 1901년부터 1973년까지 호주정부가 유지해온 비백인 이민제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호주가 영국계 백인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12)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3). 설동훈,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김영기 편), (전북대학교 출판부, 2005). 정미경, 「한국기독교와 이주민선교」,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0차 정기 논문 발표회, (2010.11.13), 3-5.

13) 임백형,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603.

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구증가 없이는 국가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이민중대 정책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백호주의를 포기하게 된다.¹⁴⁾

혈통주의는 출생과 혼인, 귀화를 통해서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하며 주로 독일과 일본 등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외국인이주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인격적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면, 소수 다문화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문화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차별배제 모델들은 비윤리적인 모델이며 한국사회에 부적합한 것들이다.

2. 동화 모델

동화적 모델(同化, Assimilation)은 외국인 이민자가 출신국가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되는 것을 요구하는 모델로서 1960년대에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취했으며 프랑스도 이 정책을 택했다. 이 모델에는 ‘용광로(Melting Pot)’ 모델, ‘인종적 스투(Ethnic Stew)’ 모델, ‘통합주의(Integrationist)’ 모델이 있다.

용광로(Melting Pot) 모델은 미국이 과거에 채택한 모델로 “Melting Pot 안의 재료들, 즉 다른 문화와 인종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다인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주민들이 이주해간 나라의 전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인종적 스투(Ethnic Stew) 모델은 용광로 모델보다 문화적 차별성이 높

1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110-111.

15) 노영상, 「다문화 사회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신촌포럼』 22번째, 2008, 63.

다. 각각의 집단들이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재료들이 헝가리식 스투로 혼합되지만 고기조각들은 여전히 그들의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게 됨을 의미한다.¹⁶⁾

통합주의(Integrationist) 모델은 프랑스에서 발전한 방식으로 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화주의’라는 용어보다 문화적 동화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적 통합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통합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¹⁷⁾

동화 모델들 역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될 것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비윤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통하여 문화적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복지사회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는 부적합한 것들이다.

3. 다문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델은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상호 공존을 목표로 한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공존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 모델, ‘인종적 모자이크(ethnic mosaic)’ 모델, ‘무지개연합(rainbow coalition)’ 모델이 있다.

샐러드 보울(Salad Bowl) 모델은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모델이다.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샐러드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들을 함께 섞지만 으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가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16) *Ibid.*, 65.

1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94.

모자이크(Mosaic) 모델은 샬러드 보울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주로 캐나다에서 사용된다. “이민국인 캐나다는 자국 사회를 ‘문화적 모자이크’라고 지칭하며 “다양한 인종·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¹⁸⁾

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 모델 역시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이것은 “다양한 인종들이 백인 중심의 틀 안에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또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파의 연합 정치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¹⁹⁾

다양한 그룹이 각각의 고유문화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을 지향하는 한국에게는 여러 모델들 중에서 다문화주의 모델이 그 중 유용한 모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IV. 한국의 선택: 배추김치 모델

다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에서 살펴본 모델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을 포기하고 세 번째 다문화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인 이주민들의 문화와 인격을 경멸하고 차별하며 그들을 주류문화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다는 세 번째 다문화주의적 방향을 추구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

18) 중앙일보 사회면, “모자이크 코리아(상) 방글라데시 남편...필리핀 아내...우린 한국인 부부”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151845

19) 브리टे니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_074.

나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적 모델들은 갈등과 분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 인구 중 외국인 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에 맞는 새로운 단계적 발전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배추김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추김치는 완전히 숙성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배추와 양념거리 등 다양한 재료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어우러지면서 큰 모체인 배추의 품으로 포용된다. 둘째 단계인 숙성단계에서는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추김치로 변화된다. 세 번째 완전히 익은 단계가 되면 모두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지만 함께 어우러져 영양분이 풍부한 배추김치로 승화된다. 잘 익은 배추김치가 되면, 각각의 재료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뛰어난 맛을 내는 영양소로 진화하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배추김치 모델을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모델로 제시함과 아울러 3단계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1단계: 상호 적응 및 포용기

외국인이주자들(결혼이민자 포함)이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순식간에 한국인구의 50%를 넘는다거나 한국의 전통문화를 뒤집어엮을 정도로 다양한 외국 문화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이주자들과 토박이 한국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박이 한국인들과 외국인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경시의식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고 돌보이주기 위해 주류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박이 한국인들은 포용력을 가져야하며 소수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반대로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주류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들 역시 한국인으로 승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윤리적 과제가 있는데, 바로 편견과 차별이다. 특히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유입해온 외국인이주자들을 문화적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1) 편견과 차별의 해소

UN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2007년 8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해 매우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꿀 것과 ‘단일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음을 밝히고 사회관습, 정부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유경 등이 2007년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중 도시거주자 60.9%, 농어촌거주자 39.1%, 남자 1.8%, 여자 98.2%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들을 보여준다.²⁰⁾

20) 김유경·조예자·최현미·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표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한국인의 외국인차별 경험 비교

(단위: %)

매우차별		대체로 차별		별로 차별하지 않음		전혀 차별하지 않음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8	8.4	32.5	43.7	46.4	39.7	13.1	8.1

주: 결혼이민자 1,063명, 한국인 배우자 947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전숙자 · 박은아 · 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427.

결혼이민자의 40.5%와 한국인배우자의 52.1%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들보다 한국인 배우자들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차별은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말일 것이다.

〈표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집단 따돌림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시	농·어촌
집단 따돌림 여부	경험한 적 있음	19.6	21.0	16.7
	경험한 적 없음	80.4	79.0	83.3
	계(수)	100.0 (553)	100.0 (343)	100.0 (210)
집단 따돌림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21.1	17.6	22.9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12.8	13.2	14.3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8.3	8.8	8.6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11.9	14.7	8.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40.4	39.7	42.9
	기타	5.5	5.9	2.9
	계(수)	100.0 (103)	100.0 (68)	100.0 (35)

주: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유경 · 조애지 · 최현미 · 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88.

이 표에 의하면 1/5, 즉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어린이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당한 이유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이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혼혈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이유들 역시 따돌림 당할 이유로는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혼혈아들에 대해서 매우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아야하며 어른들이 혼혈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00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5월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인 167,09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중 34.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일부 다문화인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차별’인지도 모르고 가정폭력까지 삶의 일부로 감내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²¹⁾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고용기

21) 여성가족부, 2009년 5월, ‘결혼이민자 현황’ 서울신문 2010년 7월 6일 <http://news.nate.com/view/20100706n01387> 참고. 이 조사결과 2009년 결혼한 국내 농촌 총각 8596명 가운데 41%(3525명)가 외국인을 신부로 맞았다. 여자는 한국인 남편보다 평균 열 살 어렸다. 특히 캄보디아는 17.5세, 베트남은 17세나 차이났다. 20대 외국인 여자와 40대 한국인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나이 차이는 다문화가족이 문화차이뿐만 아니라 세대차이까지도 극복해야할 과제임을 입증해준다. 월평균 소득은 대체로 낮았다. 평균 100만-200만원이 38.4%, 100만 원 이하가 21.3%나 됐다. 한국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332만 2000원과 사뭇 비교된다. 빈곤을 경험한 다문화가족도 30%. 전기·수도세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가난한’ 한국 남자와 ‘가난한’ 외국 여자가 만나 결혼하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다. 결혼이주자가 악착같이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여기 있다.

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노동사고, 부당해고, 성적학대, 한국 인근로자보다 근로시간 및 임금차별, 노동조합 가입금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재한 외국인 관련법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법적 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7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을 만든 근본 취지는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해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형성과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었다.²²⁾

그러나 동법 제2조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은 아예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사회통합을 고려하기보다는 관리 통제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제1단계에서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언론매체들을 활용하여 외국인이주자들의 모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

22) 김은미·양옥경·이혜영 공저, 『다문화사회, 한국』(서울: 나남, 2009), 188.

23) 윤인진,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계간 시대정신』(2008 봄호), 339-357; 엄한진,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 보고서, (2006), 13-14; 윤인진,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 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 활용방안」, 법무부, 2006.

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강한 단일민족의식, 자민족 우월의식, 자민족중심주의는 타민족을 배척하게 되어 사회통합과 국가통합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조직 내의 다양성만 강조하고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지 못하면 다문화적인 요소들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기보다는 사회에 혼란과 분열만 조장하게 된다.²⁴⁾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다문화주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표현했다.²⁵⁾ 다문화사회에서는 모든 그룹과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인정받아야 한다.

건전한 제3의 한국과 제3의 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사랑하는 관용과 평화의 정신, 상부상조와 공동체의식, 성실과 근면의 가치관”을²⁶⁾ 토대로 하여 피부색,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2. 제2단계: 숙성 및 정착 단계

외국인이주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외국인이주자들의 한국에 대한

24) Kochan, Thomas, Katerina Berzukova, Robin Ely, Susan Jackson, Aparna Joshi, Karen Jehn, Jonathan Leonard, David Levine & David Thomas, “The Effects of Diversity on Business Performance: Report of the Diversity Research Network”, *Human Resource Management* 42(1) 2003, 3-21; Gilbert, J. B. Stead, & J. Ivancevich, “Diversity Management: A New Organizational Paradigm”, *Journal of Business Ethics* 21(1) 1999, 61-76.

25)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6) 네이션 글레이저 지음, 서종남·최현미 옮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17.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정착되어 가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다음 단계인 도약기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빠른 기간 내에 주류사회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공·사립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이주자들과 토박이 한국인에게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 자유, 평등,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과 한국의 역사와 외국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토박이 한국인과 이주 한국인들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다문화 행사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연간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이 군복무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한 국민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각급 관공서에서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 자신이 이중 언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통역관 등으로 고용해서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⁷⁾

1) 건강한 다문화사회 창출을 위한 윤리적 과제, 교육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숙성과정의 관리가 중요하듯이, 한국사회를 갈등이 없는 다문화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27) 김은미·양옥경·이혜영 공저, 『다문화사회, 한국』(서울: 나남, 2009), 322.

다문화상황 속에 있는 국가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자아의식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인종적·민족적 구분에 따라 사회 속에서 선을 그어 분리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²⁸⁾ 민족이나 인종적 자아의식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자아의식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한국은 더욱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자신들을 더 큰 사회와 세계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다양한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인식, 세계 공동체 속에서의 자신과 자기 집단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소수자 정체성 교육을 통해 소수자들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줌으로서 한 사회의 문화는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²⁹⁾

시민교육은 모든 인종·민족·언어·문화·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타 집단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더욱 도덕적이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유색인종·소수집단 학생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가와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³⁰⁾

28) David A. Hollinger, *Postethnic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5), 3.

29)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2).

30)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20; J. A. Banks,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nd ed.), (New York:

다음 표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양시켜야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표 3〉 다문화프로그램 교수 학습목표

구 분	다문화적 능력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 인식 •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불평등을 인식하는 방법 • 차별, 왜곡, 편견, 고정관념 이해하기 •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 이해 • 인권 존중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 이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개발 •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 • 한 사회 내의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 방지 •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 존중, 대등한 관계 형성 • 문화적 편견 해소 • 평등사회 도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윤리 • 타인의 권리 존중 •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관심 고양 • 평등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 • 타문화 이해와 정의, 평등의 이념 교육 •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의지

자료: 오은순 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연구(II)”, RRE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43-45 내용 재구성. 재인용,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146.

다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의 중요 구성원으로 등장하게 된 현실 상황 속에서 교사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의 배경과 특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학생 개개인의 정

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학교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그룹의 학생들 상호간의 조화로운 활동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³¹⁾

학생들이 다문화 민주주의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사회역사적 공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³²⁾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른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관점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건들을 소수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식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종교적 다양성 수용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31)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21. cf. C. E. Sleeter, *Keepers of American dream* (London: Falmer Press, 1992); M. S. Crocco, "Homophobic hallways: Is anyone listening?"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2002, 217-232; S. V. Hove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ocial studies teachers", in L. S. Levstik & C. A. Tyson, (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2008).

32) A. Marri, "Building a framework for classroom-based multicultural democratic education(CMDE): Learning from three skilled teachers", *Teachers College Record*, 107(5) 2005, 1036-1059. 재인용,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75.

윤리적 과제는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종교가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은 인종전쟁과 종교전쟁이었다.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 까지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교와 유대·기독교 사이의 전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종교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으며 다른 종교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이슬람교인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슬람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고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며 타문화나 종교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50-60여 개의 임시 사원이 있다.(<http://www.koreaislam.org/>) 유럽에서의 이슬람 선교전략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판, 도서, 강연회, 잡지, 언론 매체의 장악과 사회 전반에 카세트, 비디오, 영화, 예술분야에서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둘째, 서구사회에 무슬림의 합법적 거주권 구축. 노동이민 장려, 청년들의 유학, 현지인들과의 합법적 결혼, 다산 장려. 셋째, 강력한 이슬람 공동체 건설. 넷째, 이슬람 공동체를 통해 현지에 맞게 상황화된 설교의 전파. 다섯째, 이슬람의 정치적 합법화를 위한 이슬람 정당 창립. 여섯째, 이슬람 공동체에 샤리아법이 우선적으로 관철 되도록 지향. 일곱째, 서구사회의 이슬람화.³³⁾

33) 정미경, 「한국기독교와 이주민 선교」, 24-25 참고. 샤리아는 “이슬람교에서 코란을 바탕으로 한 법의 체계로서 알라가 마호메트에게 내린 종교적 규칙”이다(<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706800>).

이러한 이슬람 선교전략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 남성들이 국적취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여성들과 결혼하고 이슬람 종교를 강요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슬람의 전방위적인 선교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이슬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될 경우 한국사회 전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수적이고 전투적인 기독교파들과 충돌하게 될 경우에 한국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두 집단 자체가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법을 훼손하는 집단과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느 한 특정 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해치고 사회통합과 평화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3. 제3단계: 도약기

모든 요소들이 포용과 용납의 단계와 숙성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잘 익은 맛있는 배추김치로 승화된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과 민족적 뿌리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모든 거주자들의 마음 속에 한 국민 의식이 형성된 단계이다. 이전까지 순혈주의 단일민족 국가를 주장하던 한국인은 이제 소수자가 된 상태일 것이다. 다양한 인종, 다

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공존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토대로 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성이 새로운 국민의식으로 정착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새롭게 형성된 국민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세계 공동체 속에서 더욱 큰 긍정적 에너지로 활동하는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명절이나 국경일마다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뿌리를 가진 문화행사들이 개최될 것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행사들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여러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숙성됨으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부유하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V.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돌봄의 윤리 및 교회의 책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승화시켜 제3의 한국, 제3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윤리란 “인간과 인간사이 그리고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우주와 자연을 포함하는)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만드는데 합당한 행동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⁴⁾ 기독교윤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살게 함, 행복하게 살게 함이다. 이는 결국 ‘돌봄’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 기타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이들을 돌봄이 정의이다. 이들을 돌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므로 힘들어도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가 가꾼 터전이라고 할지

34)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서울: 동문선, 2011), 20.

라도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들도 이미 이 땅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6: 31-46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마가복음 9:33-37에서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자들을 꺾박하지 말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허수같이 흘릴지로다(5:24).”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공의를 행할 것을 원하신다(미가 6:8).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과 과부나 고아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출 22:21-24, 23:9). 하나님은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레 19:33-34).

마태복음 20:1-1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른 아침서부터 일을 한 사람에게나 오후 늦은 시간에 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나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었다. 조상 대대로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거나 최근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모두 동일하게 한국의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땅, 내가 땀 흘려 가꾼 땅, 내가 오래 산 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를 아낌없이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다.

어느 누구든 어디에나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개척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코리안 드림을 성취하기 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 가슴에 정치, 경제, 문화적 억압과 착취로 인한 한이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착을 돕고 제3의 한국 창출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남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지와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리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교와 성경공부와 기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및 기타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 단체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독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다음과 같이 교회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야 한다.

각 지역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부진 학과목 지도,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법률 안내 미풍양속 안내 등과 같은 교양강좌 실시, 자신들의 문화 활동과 친교를 위한 장소 제공, 다문화 축제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및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에 친숙해지도록 만들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각 지역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며 자체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VI. 맺는 말

한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진 다문화국가로 발전해갈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 땅에 터를 잡고 산 토박이들은 새로이 이주해오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행복한 동지를 틀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 국가 새 문화 창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꾼 터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는 그들도 이미 이 땅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켜 놓은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빨리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조국이 될 한국, 자녀들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하고 가꾸어야 할 모국이 될 한국이 아름답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문화적 뿌리와 재능 등)을 바쳐 노력해야 한다.

배추와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숙성됨으로서 각각의 고유성을 잃지 않지만 이전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함께 어우러져 제3의 정체성을 가진 개체인 배추김치로 승화되듯이 다문화사회로 승화되는 한국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한국은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나라가 아닌 그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도 부강한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고 배우며 함께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들로 진화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은미·양옥경·이혜영 공저.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 2009.
- 김희수. 『기독교윤리학』. 서울: 동문선, 2011.
- 네이션 글레이저 지음, 서종남·최현미 옮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노영상. 「다문화 사회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신촌포럼』 22번째. 2008.
- 박영은. 『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23집. 199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9월호.
- 설동훈.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김영기 편). 전북대학교 출판부, 2005.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영아. 「다문화가족의 증가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9.
- 엄한진.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 보고서. 2006.
- 여성가족부. 2009년 5월.〈결혼이주자 현황〉. 서울신문 2010년 7월 6일.
<http://news.nate.com/view/20100706n01387>
- 오은순 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연구(II)」. RR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 교육』. 경기: 도서출판동녘, 2009.
- 윤인진.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계간 시대정신』 2008 봄호: 339-357.
- _____.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 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 활용방안」. 법무부. 2006.

- 전숙자·박은아·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 정미경. 「한국기독교와 이주민 선교」.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0차 정기 논문발표회. 『다문화사회와 기독교윤리』.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0년 11월. 13.
- 주원희. 〈장애가진 외국인 혜택 아무것도 없다〉. 에이블뉴스. 2007년 9월 2일
- 차용호.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 1.
- 황장석. 〈한반도 단일민족 신화는 만들어진 역사〉. 동아일보 2008년 12월 5일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050087>.
- 이혜경. 「다문화사회의 이해: 차이와 공존·변화와 방향」. 『한국사회의 이해』. 2008년. 12.
- Banks, J.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2.
- _____. “Approaches to multicultural curriculum reform,” in J. A. Banks and C. A. M. Banks(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4th ed.). Boston: Allyn & Bacon, 2001.
- _____.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07.
- Sleeter, C. E. *Keepers of American dream*. London: Falmer Press, 1992.
- Castles, Stephen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3.
- Crocco, M. S. “Homophobic hallways: Is anyone listening?”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2002. 217-232.
- Gilbert, J., B. Stead, & J. Ivancevich, “Diversity Management: A New Organizational Paradigm”, *Journal of Business Ethics* 21(1). 1999. 61-76.
- Glazer, Nathan. *We Are All Multiculturalist No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2003.
- Hiebert, Paul, G., 김동화 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 Hollinger, David, A. *Postethnic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5.
- Hover, S. V.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ocial studies teachers,” in L. S.

- Levstik & C. A. Tyson(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2008.
- Kochan, Thomas, Katerina Berzukova, Robin Ely, Susan Jackson, Aparna Joshi, Karen Jehn, Jonathan Leonard, David Levine, & David Thomas, "The Effects of Diversity on Business Performance: Report of the Diversity Research Network", *Human Resource Management* 42(1) 2003. 3-21.
- Marri, A. "Building a framework for classroom-based multicultural democratic education(CMDE): Learning from three skilled teachers". *Teachers College Record* 107(5) 2005. 1036-1059.
-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Today: Advantages of Specialization and Costs of Financialization". Paper presented at 2009 글로벌 서울 포럼: Global Metropolitan Forum of Seoul 2009,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The Global City: Strategies for Competitiveness). 서울, 신라호텔.
- Scott, Allen, J. "Global City-Regions: Economic Motors and Political Actors on the World Stage", Paper presented at 2009 글로벌 서울 포럼: Global Metropolitan Forum of Seoul 2009,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The Global City: Strategies for Competitiveness). 서울, 신라호텔.
-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Tylor, E. B.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New York : Henry Holt, 1889.

논문투고일 : 2011. 05. 01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국 문 초 록 •

한국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외국인근로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들이 증가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국가를 창출해 내는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박이 한국인들의 폐쇄적인 의식을 개혁하여 다인종 다문화를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과 외국인이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국적인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소화하여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다인종 다문화적 자원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배추김치 모델'과 3단계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 다문화사회, 외국인 이주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수용 모델, 배추김치 모델
